



삼파시오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손숙미 STOP TB 협력위원장

## UN 결핵퇴치 특별대사 조르제 삼파시오 방한

# 세계 결핵퇴치에 한국이 정책적, 재정적 지원해 주길 바라며

2012년 11월 22~23일까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한결핵협회 STOP TB 운동본부가 주최한 STOP TB 파트너십 동아시아포럼 참석차 UN 결핵퇴치 특별대사 조르제 삼파시오가 한국을 방문했다. 삼파시오는 포르투갈 대통령을 두 번이나 지냈으며, 반기문 UN 사무총장에 의해 UN 결핵퇴치 특별대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전세계 결핵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세계 결핵퇴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회견 전문.



한국의 경우 결핵과 관련해 많은 진전이 있었던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조르제 삼파이오 UN 결핵퇴치특별대사



한국 방문은 처음인데, 유엔결핵퇴치 특별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임무로, 한국이 결핵퇴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주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이번 방문 일정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께 결핵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결핵 통계, 즉 수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통계를 말씀드리면 결핵이 얼마나 심각한 질환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망률에 대해 이야기하면,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이 2011년에만 14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이 결핵 자체가 예방할 수 있고, 저렴한 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 해에 14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전세계 감염성 질환 사망으로 봤을 때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가 에이즈, 2위가 결핵, 3위가 말라리아이며, 매 분 결핵으로 3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중 1/3이 여성이고, 이중 HIV 감염자가 43만 명, 2011년 결핵 신환자가 870만 명에 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결핵이 사망원인 10위에 해당합니다. 전염병 중에는 2번째고요, 지역적으로는 서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모든 결핵환자 케이스의 60%를 차지하고 60만 명이 이 지역에서 결핵으로 사망합니다.

서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새로운 결핵환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아직도 도전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결핵과 관련해 많은 진전이 있었던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제내성결핵의 등장입니다. 다제내성을 가진 결핵을 발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결핵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적절히 하지 않고,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다제내성결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다제내성 결핵이 되고 나면, 치료기간도 오래 걸리고 치료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즉 아시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의 결핵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위기가 할 수 있고 동시에 성장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로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핵이 인간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도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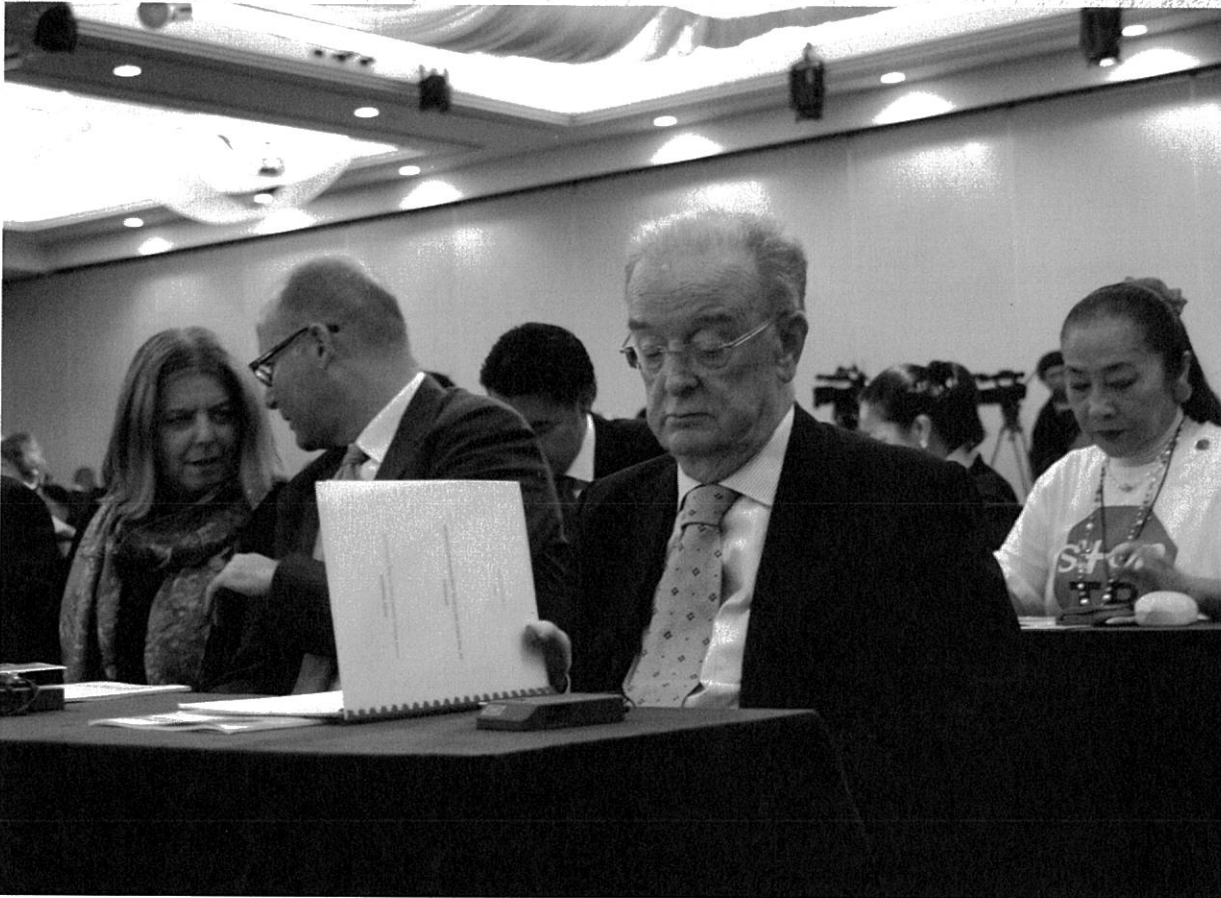
빈곤한 지역에 더욱 영향을 끼치는 질병이 결핵이라는 질병인데, 결핵 때문에 빈곤지역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핵 발병 대상이 15세~54세 연령대입니다. 이 연령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생산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은행에서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핵으로 인해서 GDP가 4~7%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TB와 관련된 새천년 목표가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원조와 협조정책을 통해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지원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결핵 때문에 이 질환의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가정, 세대들의 부담이 되고 또한 결핵 때문에 정부 예산의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다제내성결핵, 슈퍼결핵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당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결핵을 근절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다제내성결핵 약제 개발에 있어 한국정부의 원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STOP TB 파트너십 동아시아포럼에 참석한 조르제 삼파시오

한국당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결핵을 근절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다제내성결핵 약제 개발에 있어 한국정부의 원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이 서태평양,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여러 국가 간의 협력관계 동반관계를 더 증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결핵퇴치를 위해 리더의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번 방한기간 동안 조르제 삼파시오 결핵퇴치 특별대사는 회의 일정과 별도로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 관계자 등을 만나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결핵퇴치와 관련해 해주길 바라는 지원에 대해 강력히 요청하고 돌아갔다.

국제결핵문제에 있어 한국은 선진국 수준으로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는 나라이며, 동시에 성공적인 결핵관리사업을 실천한 국가이기에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